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AUM Architects, Engineers & Consultants, Inc.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전시장 전경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건축전문전시회로 개최 3회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전시회는 물론 지난 2006년, 2007년 전시회에도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와 함께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한국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무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특집을 마련해 연재한다.

- 편집자주

범건축은 1984년 창립한 이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종합설계사무소를 목표로 정진하여, 국내 굴지의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성장해 왔다. 모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은 물론, 초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전문 인력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건축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

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범건축은 크게 설계부문, 부설연구소, CM기술부문 및 경영기획부문의 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의 구성원은 어떠한 프로젝트이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로 일치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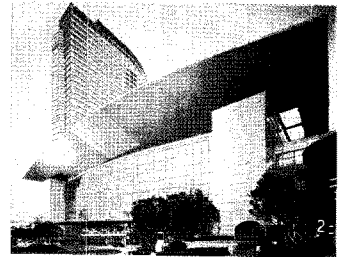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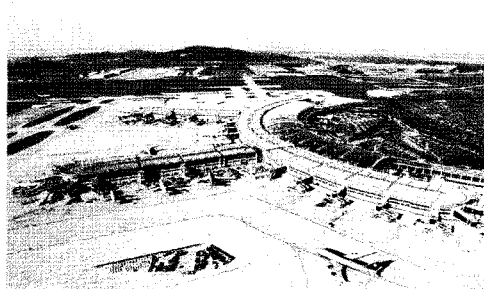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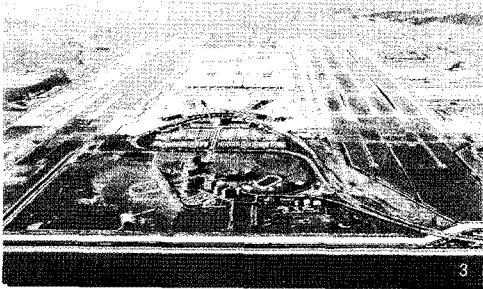
창립 스토리 : 창립부터 현재까지

범건축의 창업자인 강기세 회장은 설계사무실을 창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문분야인 CM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를 맡아보려 하였으나, 같이 하기로 한 다른 설계사무실 내부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이 있어 무산되었다.

그 당시에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던 터에 다재다능하고 건축설계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던 후학 중 유원재소장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동기인 박상돈 소장도 같이하기로 의기 투합 되어 범건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등시장 근처의 사무실에서 1984년 9월에 설계사무실을 시작하였다.

범건축에서 첫번째 프로젝트는 인제학원 부산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었다. 이미 백병원과는 깊은 신뢰를 갖고 있어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인제학원의 설계업무가 시작되면서 사무실도 범건축의 1기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의 건물로 옮겼으며, 회사의 형태도 법인으로 바꾸어 범건축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성장을 거듭하던 중 1997년과 1998년의 IMF를 맞게 되었으나, 범건축은 중요한 프로젝트-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SEM 및 한국무역센터 확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손조롭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창업자인 강기세 회장은 사무실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를 후배인 박영건 사장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범건축에서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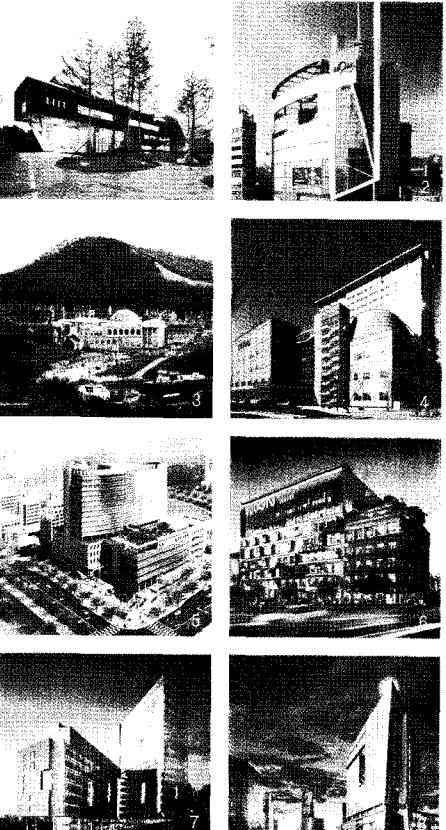


이 후 십여 년을 거치는 동안 범건축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축물, 대학 시설, 호텔 관련시설, 연구소 관련시설, 병원관련 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범건축을 한번 만난 건축주는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는 건축주'로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설계를 하여, 인제학원의 경우는 25년 이상 설계를 도맡아 해 오고 있고, 건국대학교는 2002년 이후에 건국대 병원을 시작으로 설계한 것이 건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대 캠퍼스의 대부분이 범건축 설계진이 되었다. 범건축에서 설계한 대표작으로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ASEM 및 한국무역센터 확충사업과 건대병원, 중대병원, 무주리조트, 푸르덴셜 타워 등이 있으며, 주거시설로는 잠실시그마 타워, 돈암시장재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부산의 초고층 롯데타운,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행정 중심 복합도시 정부청사 신축공사, 송도 신도시의 여러시설물,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진행하고 있다.

▲ 1~2 ASEM 및 한국무역센터 확충사업
3~4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 동산문화재단센터	10. 호텔 부산웅금강(주식)
2. 강계동 과학소관빌	11. 사구교차로 노스스퀘어빌
3. 강기 영아마을 피수센터	12. 여경 게이트웨이 플라자
4.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13. 동구 극장식 유희 신도시
5.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암관	14. 비스타 플랜
6. 한스 현대아파트 일명 안양빌딩	15. 경희대학교 비전타워
7. 장영빌딩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6. 건대대학과 신의현빌딩
8. 송도신도시 지식정보단지 SC3빌딩(송도 ITO, 비드로 호브)	17. 인천대학교 오정관과학관(주식)
9. 송도신도시 크리стал 콤플렉스	18. 국립중앙과학관 종합연구동(주식)



주력사업

- 건축설계 (의료, 교육, 연구, 업무 및 상업, 복합, 레저 문화, 주거시설 등)
- 프로젝트 개발계획
- 도시 및 환경계획
- 공사감리 및 CM
- 리노베이션 설계 및 감리



기업 이념 및 Vision

범건축의 이념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 능력과 기술력을 함양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서비스 정신을 구현

범건축의 비전

1. 전문가집단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지향
2. 전문가집단의 최고 수준의 팀워크 구축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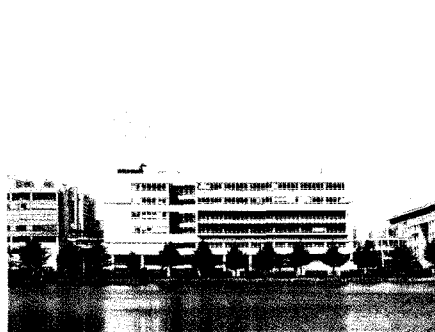
1. 국가의 미래와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설계집단
2. 역사와 전통의 계승발전을 추구하는 설계집단
3.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보전을 우선하는 설계집단
4. LCC차원의 경제적 적정성을 고려하는 설계집단
5. 지속적인 자아 평가를 실현하는 설계집단
6.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설계집단

최근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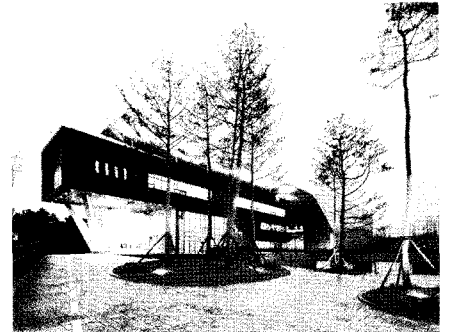
■ 수상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작품상 -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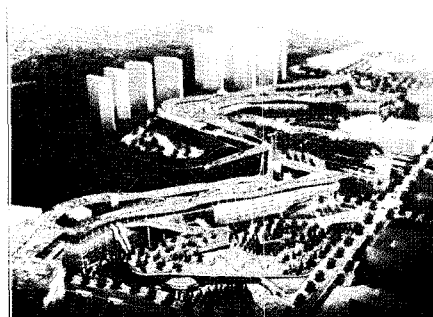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축상 장려상 - 건국대학교 제2생명과학관



양산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웅성문화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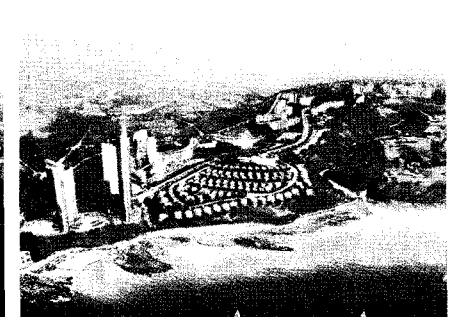
■ 주요 수주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송의운동장 복합단지개발 PF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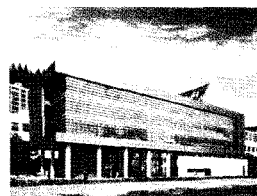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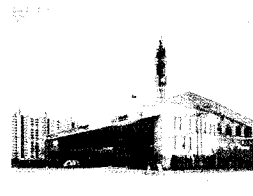
■ 준공 프로젝트



충무원엔지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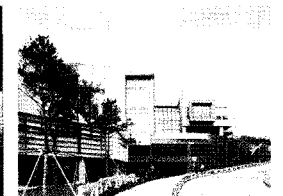
부산인프라코어 공기자동차화 BG R&D 센터



화성소방서



한남대학교 기숙사 및 글로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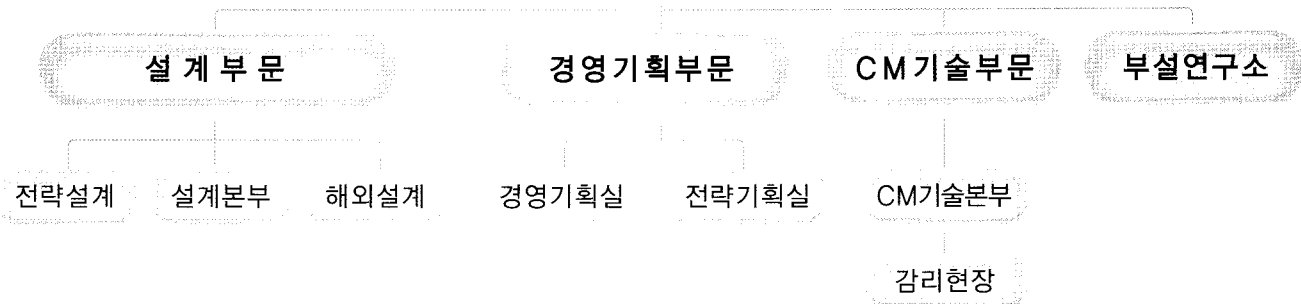


원자력의학원 환경개선사업
(암센터동 및 진단영상선과동)

조직 및 인원구성 소개



대표 / CEO



대표이사 및 임원진 소개



회장
강기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 (주)서울건축 대표이사
- 중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유신특수설계공단 대표



대표건축사
박영건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대표
- 종합건축사사무소 상정 공동대표



대표/CEO
이정면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CEO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국지사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 건축가
-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 건축가
-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CM 기술 부문 사장
김순환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박사)
- 독일 아헨공대 건설공학과, 연수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CM 기술 부문 사장
- 건설교통부 건축사무관
- 고속철도 건설기획단 건축사무관
- 철도청 건축사무관



설계 부문 부사장
김명홍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영 기획 부문 부사장
원형준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환경그룹 건축연구소
- 기전건축



설계 부문 소장
박형일

- 홍익대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위자 정책과정 수료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CM 기술 부문 소장
김진기

-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학과 졸업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상정
- 일양건축 연구소
-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일양 건축 공방

경영 기획 부문 이사 강보현, 박종석, 정민수

설계 부문 소장 윤영로, 권보순, 서영호, 신용성, 지대성, 김형주, 박상호, 김기영, 박형일, 이인서, 고준배, 장덕찬, 박소형

CM 기술 부문 소장 이정덕, 전동한, 김준섭

범건축의 차별화 및 주요 특징과 장점

범건축의 25년은 건축개념설정과 설계발전과정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며, 고객과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축적인 언어와 방법으로 성실하게 소화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루어 감으로써 한국건축계의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범건축은 설계, 기술, 경영의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건축디자이너와 설계 전문

가로 구성된 4개의 설계조직과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CM기술본부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설비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 검토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프로젝트 초기부터 건축물의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정신 그리고 능동적인 프로젝트 접근방법과 창조적인 범건축의 디자인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초대형 복합건축
- 의료 및 노인시설
- 숙박 및 휴양시설
- 업무 및 판매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
- 주거 시설
- 체육 및 문화집회시설



-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
- 개발개념 설정
- 개발전략 수립
- Business Financing
- 건축물 가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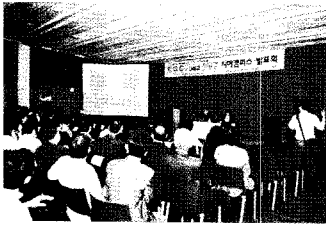
- 건설관리
- 감리관리
- 공사비 및 공정 관리
- 사업기간 관리
- 품질관리
-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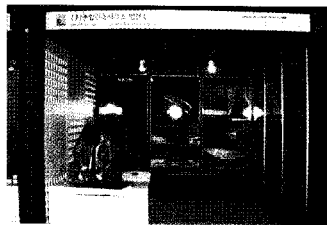
- 도시계획
- 마스터플랜
- 단지계획
- 지구단위계획

사내외 주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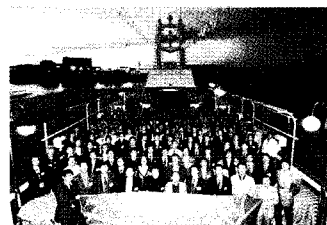
■사내외 주요 행사



이화캠퍼스 진원강 발표회



서울디자인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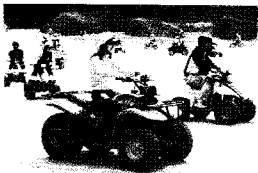


창립24주년 기념행사



송년행사

■야유회



산악오토바이 체험



여자 풋살



서바이벌 게임



도예 체험



남녀 족구

■동아리 활동



농구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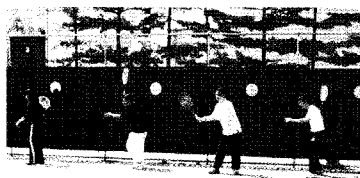
배드민턴 동아리



남자 풋살



청계산 산행



테니스 동아리 (ACE B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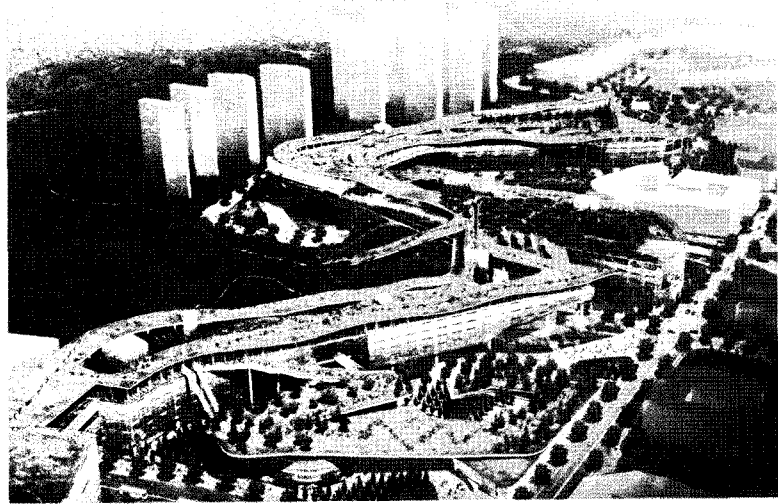
축구 동아리 (FC BAUM)

범건축 프로젝트_ Bes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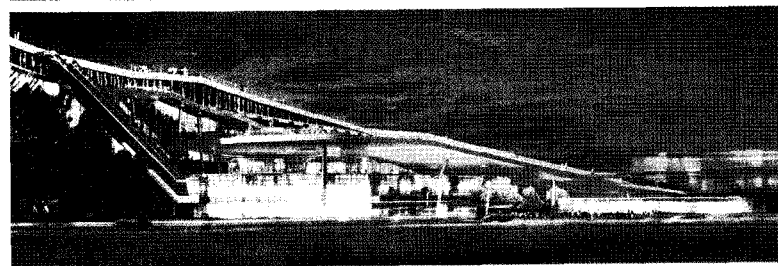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Government Complex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 중성행정타운내 청14~19
지역/지구 중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산지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1-5생활
 권(중성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특20)
주 요 용 도 공공업무시설(정부청사)
대 지 면 적 121,339.00m²
건 축 면 적 55,391.03m²
연 면 적 215,250.19m²
건 폐 율 45.65%
용 적 륜 136.30%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일부 철골구조
주 요 마 감 외부 : THK24 칼라로이폭충유리(A/C), 노출콘크리트, 리브크리브외
 자기질페인트
 내부 : OA Floor 위 OA타일, 친환경수성페인트, THK15 입면흡음텍스
설 계 참 여 범건축 : 박영건, 김순환, 이정덕, 전동한, 고준배, 이상태, 여영선, 이용선,
 김호영, 최완식, 박희성, 반승택, 이주경, 주리아, 김성운
 아르텍 : 김관석, 김영호, 김영삼, 조미정, 최정배, 임정원



순성 한상곡 본 계획안의 전제는 떠 있는 성벽과 멀티레이어 디자인 그리고 환경 자족적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의 개념과 디자인 원리를 최대한 존중했고, 특히 녹화된 지붕공원과 그 하부 주차장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떠 있는 성벽이란 전통 도읍에서 적용했던 성곽의 이미지와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다.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지붕 위를 걷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성곽을 따라 산책하던 '순성놀이'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건물의 지붕면을 여러 겹로 나누고 중첩해 한상곡의 음불처럼 물결치도록 구성했다. 환경 자족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해 에너지와 지열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테러 등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Seoul

대 지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2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공공시설보호지구
주 요 용 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대 지 면 적 38,058.00m²
건 축 면 적 15,596.50m²
연 면 적 506,334m²
건 폐 율 47.8%
용 적 륜 928.22%
규 모 지하 7층, 지상 38층
구 조 철골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주 요 마 감 철골,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 석재
설 계 참 여 서영호, 이재성, 김진수, 백세현, 최순민, 이영선
Design Arquitectonica, U.S.A.



서울국제금융센터(IFCS)는 대규모 교통 수용능력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여의도에 위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전용 빌딩 3동과 500개의 객실을 갖춘 오성급 특급호텔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3개 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쇼핑몰과 멀티플렉스 및 엔터테인먼트센터가 지하층에 계획되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국제적인 오피스건물에 부합하도록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래의 신기술 또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세계적인 건축물 건설과 관련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친환경요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여 유지비를 줄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인 LEED의 GOLD등급의 획득을 목표로 본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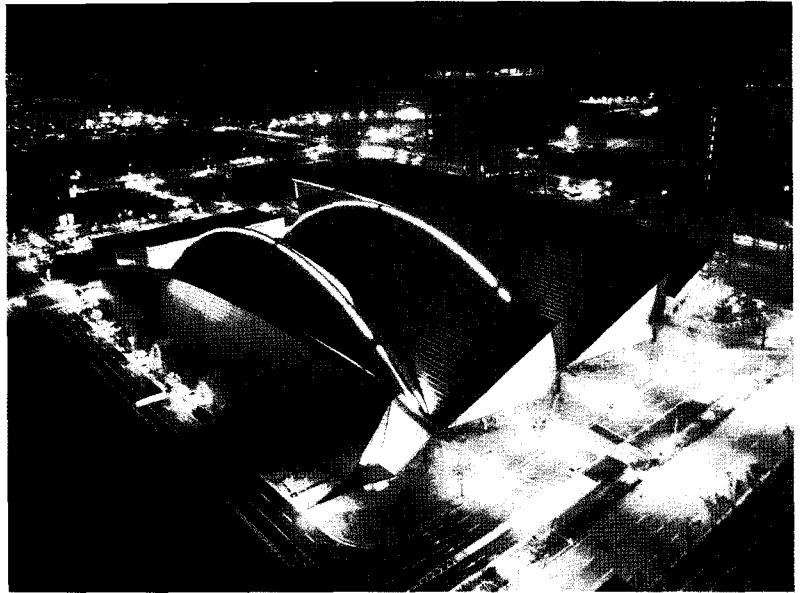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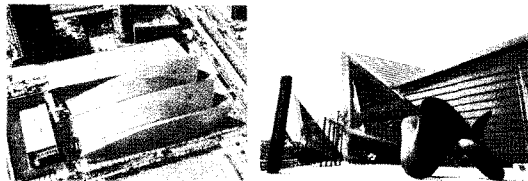
범건축 프로젝트 Best Work

송도 컨벤시아

Convensia, New Songdo City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지역 / 지구 중심상업지역, 산업단지사업지구
 주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 지 면 적 102,166.2m²
 건축면적 25,222.32m²
 연 면 적 54,128.79m²
 건 폐 율 26.06%
 용 적 륜 36.6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 요 마 감 외부-금속패널, 북층유리 / 내부-화강석, 카펫, 목재
 설 계 참 여 박형일, 이인서, 김기영, 이선미, 김종석, 임정호, 김수임, 박제성, 이재복, 신봉기

Design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U.S.A.



54,000m²의 컨벤션센터(컨벤시아, convensia) 1단계 건물은 송도신도시 중심부의 오픈 스페이스인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의 남쪽 끝단에 위치한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이다. 이 건물의 외형은, 센트럴 파크 외부로 물결치듯 연속되는 선형을 따라 포개지며 잡혀진, 마치 중첩된 산맥의 형태로 넓은 지붕을 개념화하였다. 이 지붕은 계획된 요소들을 하나의 몸짓으로 둘러싸고 있어, 지붕이 곧 건물인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 요소들은 전시장, 전실, 지붕을 지지하는 공간 및 하역장 등이다.

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무주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으며, 중첩된 산맥의 형태를 「송도컨벤시아」만의 독창적인 전시장 내부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데 활용하였다. 전시장은 전시공간과 서비스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계부분의 양측에 코어를 자립적으로 배치하고, 이 위에 지붕구조를 올려놓는 독창적이고 특별한 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기둥이 없는 광대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지붕은 Boat, Gable 형태의 파이프 트러스 구조물로, 90여 미터의 무주공간을 이루었다. 교차하는 Boat, Gable 형태의 지붕은 안개 낀 오전에 센트럴파크나 주변 인근에서 「운해를 가르고 올라오는 한반도의 중첩된 산맥」을 연상시켜 장관을 연출할 것이다. 또한, 전시장 지붕과 Head House의 입면마감은 한국의 전통적인 기와의 중첩된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부산 롯데타운

Busan Lotte Town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7가 20-1번지 외 110필지
 지역 /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려지구
 주요 용도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대 지 면 적 40,185.00m²
 건축면적 22,504.00m²
 연 면 적 570,197.00m²
 건 폐 율 56%
 용 적 륜 959.10%
 규 모 지하 6층, 지상 107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 요 마 감 로이북층유리, 알마늄 패널, Channel Glass
 설 계 참 여 박영건, 권보순, 이재영, 강지훈, 박창권, 신수미, 이승찬, 이재혁, 임승철, 전세영

Design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U.S.A.

세계 유수의 초고층 빌딩과 비견될 수 있는 초고층 빌딩 건축으로 항구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 고양 및 유통,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높이 107층, 760 객실 규모의 호텔과 전망대 및 부대시설을 갖춘 타워와 국제회의장, 오락 및 문화시설을 갖춘 저층부의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이 도입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자연과 인공이 잘 조화된 환경 친화적 환경을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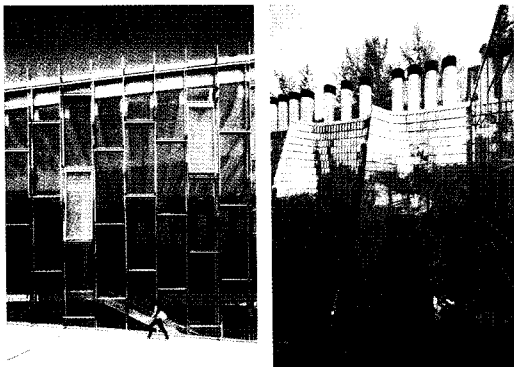


범건축 프로젝트 Best Work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WHA Campus Complex

대 지 위 치 서대문구 대학동 11-1번지
 지역/지구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 요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 지 면 적 539,549.70m²
 건 축 면 적 136,80m²
 연 면 적 68,657.24m²
 건 폐 율 15.06%
 용 적 륜 56.63%
 규 모 지하 6층, 지상 1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주 요 마 감 외부 : THK28 로이복층유리
 내부 : 자라목, 나무섬유질흙음판, 타공아연도천장재
 설 계 참 여 원형준, 박형일, 지대성, 손상호, 고봉석, 김상엽,
 지혜진, 손기영, 신정운, 김보경
 Design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France



2006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한 이화여자대학교가 대규모 교육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진행한 '2002 이화여대 장기발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국제지명현상을 통하여 도미니크 페로의 안이 당선되었으며, Local Architect로 범건축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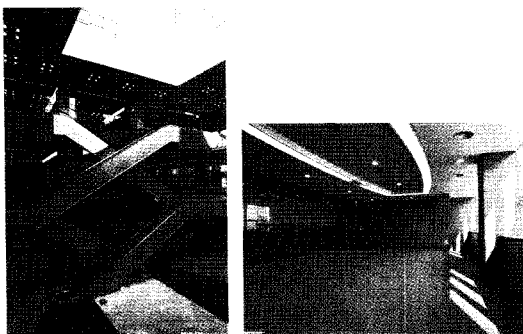
전체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로 하부 2개층의 주차장시설과 상부 4개층은 교육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로 계획되었다.

폭 20m 길이 300m의 '캠퍼스벨리'가 정문과 본관사이를 연결하며 각종 아카데미 활동 공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보를 통해 '머물고 싶은 캠퍼스' 특히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차가 없는 쾌적한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Konkuk University Hospital

대 지 위 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12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 요 용 도 종합의료시설
 대 지 면 적 17,171.00m²
 건 축 면 적 6,246.71m²
 연 면 적 83,101.84m²
 건 폐 율 36.3%
 용 적 륜 200.41%
 규 모 지하 4층, 지상 1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 요 마 감 외부 : THK30 화강석, THK18 칼라복층유리
 창호 : THK150 알미늄 칼라샷시
 설 계 참 여 원형준, 신용성, 지대성, 손기영, 지혜진,
 김상엽, 김효영, 심재선, 최성환



'한국 제일의 일차 병원'이란 병원계획의 개념으로 출발한 건국대학교 병원은 우수한 인력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대학병원의 건립에 대한 기본을 지키면서 계획한 병원설계이고, 주변의 많은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하 4층, 지상 13층의 건국대학교병원은 단순한 형태의 병원으로 기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우수한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내부 중앙 홀을 중심으로 배치된 외래 진료부와 간호동선이 가장 짧은 이중 복도 형태의 병동배치로 계획하였다.

지하철 역사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이용자들의 교통동선을 여러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병원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CEO 이정면

범건축 이정면 대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건축과 민우건축에서 탄탄한 건축실무 경력을 쌓았다.

이어서 1995년 범건축에 입사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고, 범건축 미국지사에서 10여년 동안 건축 활동을 하던 차에 2008년 10월 범건축의 대표이자 CEO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건축설계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열정으로 범건축의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건축집단으로서의 범건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건축사 선후배님에게...

건축을 생활하는 곳으로서의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이 많이 변했다. 외국에서 그야말로 '과분한' 대우와 인정을 받으며 '잘 못 길들여진(Spoiled)' 지난 10년의 타성으로 더욱 다르게 느끼는지도 모른다.

한 프로젝트의 Master로서의 역할보다는 충직한 협력자와 지원자로서의 건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어쩌면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선배들로부터의 모욕과 질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에서 쉽지 않게 익힌 가치를 난도질을 당하는 기간을 지나,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을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를 거쳐 누구보다 자신있는 큰 몸짓을 가지고자 노력하던 내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제 또래의 선후배, 동기들을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건축 그 자체보다는 '포장' 능력이 크게 평가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건축인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정착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입사 후, 6년이 넘도록 Photoshop 프로그램하고만 씨름했다는 한 건축계 후배의 고백이 아직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 언제부터인가 디자인의 능력이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숙련도로 평가되기 시작했다고한다. Architecture란 언어는 이제는 Cyber-Tecture로, Architect가 Oper-tect로까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 본다. 대부분의 후배들이 실물보다는 가상의 것을, 본질보다는 껍질을, 절대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례감을 기준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느낄 수 밖에 없는 피상적인 감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Cyber Space에서 2차원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3차원으로 우리의

건축을 행하고 있다.

진부한 아날로그 세대의 시각일지도 모르지만, 모형과 제도판 위에서 씨름하며 얻었던 것을 큰 자산으로 굳게 믿고 있는 내소견으로는 걱정이 우선된다. 이런 걱정이, 휴머니즘이란 큰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휴먼 스케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의 후배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우이길 바란다.

BIM이, 그리고 비정형 3D 설계가, 디자인의 화두로, 건설계의 뜨거운 이슈로 얘기되고 있다. 제도판에서 2D 컴퓨터 설계로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에 이어, 이제, 채 이십년도 되지않은 현재, 3D 설계로까지 숨 가쁘게 진화하는데, 우리, 기성 건축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과연 이에 발맞추어 진화하는 것인지, 혹은 진화할 수 있는 것인지가 많이 궁금한 요즘이다. 우리 기성 건축인들이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구로 무장된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건축인으로서의 희열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위의 생각들이 일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의무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 건축계의 숙제로 자꾸 제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뜬금없는 사고의 사치이고,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제 걱정의 일단을 접어보고자 애쓰지만, 과연,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수'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